

# 18세기 말 19세기 초 英陽縣 雲谷影堂의 置廢

-조선후기 영남 復縣의 노론계 院宇 건립 사례

채 광 수\*

- I. 머리말
- II. 18세기 영남 노론계 원우 先例와 운곡영당의 창건
  - 1. 18세기 영남 노론계 원우 선례
  - 2. 영양현의 운곡영당 창건
- III. 세 번의 훼손과 향촌사회의 반향
- IV. 맺음말

## 국문초록

본 연구는 17세기 후반 복현 된 영양현에서 주자와 송시열을 배향한 운곡영당이 치폐를 다룬 연구이다. 영양현에서는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까지 新舊鄉간의 향전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이와 관련된 기록인 『雲谷影堂掌故』를 근거로 관찬사료에서 비교적 간략히 언급된 운곡영당의 치폐를 살펴보았다.

18세기 초 서원은 중앙 집권세력에게는 자과 세력 부식을, 재지사족에게는 향촌 주도권을 확보하는 세력 간 분기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영남에서도 갑술환국 후 중앙 노론세력과 지방 관권의 지원과 이에 부응한 신출노론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원 / corhkdt911@ynu.ac.kr

의 협조 하에 20여개소 노론계 원우가 건립되는데 이중 송시열을 배향한 원우가 그 비중이 제일 높다.

영양현에서도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한 신향세력들이 京鄕의 자문을 받아 곡절 끝에 1781년(정조 5) 윤5월 영당을 건립했으나 9월 경상감사로 부임한 소론계 趙時俊에 의해 서원을 신설한 혐의로 곧바로 훼철을 당한다. 5년 뒤 영조연간 朝野에 파란을 일으킨 안동 김상헌 서원의 후신인 西礪祠가 1786년(정조 10) 사액된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중건이 이루어진 듯 했으나 남인들의 저지로 무산 된다. 이에 운곡영당 측은 성균관 등에 통고하여 훼철 주도자를 儒罰하고, 1802년(순조 2) 2월 노론계 감사 남공철의 부임과 때를 맞춰 중앙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중건에 성공한다. 그러나 1806년(순조 6) 2월 소론계 감사 尹光顏에 의해 또 다시 훼철을 당하자 임금에게 상서하여 진상조사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훼철과정에서 移奉 예절 등에 심각한 문제점이 규명되면서 훼철 관련자들은 처벌을 받지만 더 이상의 영당 중건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운곡영당은 중앙으로부터 인정받은 영당임에도 3차례나 훼철되었다. 이는 구향에게는 향촌내 우위를 지속하기 위한 절박한 문제였다. 반면 신향은 3차례나 영당을 건립을 시도할 만큼 성장하여 향권에 도전했다고 할 수 있다. 운곡영당의 치폐는 이러한 신구향이 충돌한 사건이자 조선후기 영남 노론계 원우 건립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 주제어

운곡영당, 영양현, 향진, 노론, 훼철

## I. 머리말

조선후기 영남지역 향전은 크게 향안, 校院, 향임 등을 둘러싼 분쟁이 발단이다<sup>1)</sup>. 본고는 이중 교원과 관련된 향전에 해당한다. 17세기 후반 복현된 영양현에서는 주자와 송시열을 배향한 운곡영당 건립을 두고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까지 신구향간 치열하게 향전이 전개되었다.<sup>2)</sup>

본 향전의 기본 자료는 운곡영당의 건립을 추진한 신향 즉 신출노론의 입장에서 기록한 『雲谷影堂掌故<sup>3)</sup>』이다. 이 자료는 영당의 2차 복설이 이루어진 1803년(순조 3) 이후 정리된 것으로 「創建事蹟」과 「毀撤顛末」을 비롯하여 이와 연관된 통문·呈訴와 題音·서찰·禮式文·상량문·중건기 등을 연대기적으로 수록해 놓은 필사본이다.

이러한 자료는 관찬사료에서 비교적 간략히 언급된 운곡영당의 치폐 사례를 보다 자세하게 재구성할 수 있다. 특히 영남지역 신향들이 어떤 방식으로 원우 건립을 추진했고,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해 나갔는지 파악할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운곡영당장고』는 신향의 입장에서 정리되었다. 일정한 한계점은 있지만 영남 향촌사회의 일면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임에 틀림이 없다. 작성의 주체가 신향이라는 점은 객관성을 담보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들의 관점에서 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반대편의 입장도 함께 비교·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자료의 제한으로 현재 확인할 수 없는 점은 미리 양해를 구한다. 아울러 본 자료에 미 수록된 3차 훼손 과정은 관찬사료를 주로 활용

1) 김준형, 「조선후기 영남지역 鄉戰의 분석」 『남명학연구』 43, 2014.

2) 운곡영당 관련 기존 연구성과는 실록·승정원일기·일성록 등의 관찬사료를 바탕으로 검토한 고석규, 「19세기 전반 鄉村社會勢力間 對立의 推移」 『국사관논총』 8, 1997, 조준호, 「17~18세기 英陽地方 漢陽趙氏의 門中研究」 『북악사론』 4, 1997가 있다. 이외 조선후기 영남 향전에 대한 선행 연구는 상당히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3) 『운곡영당장고』는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으며, 기탁자는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의성김씨 문중의 故 김중환씨였다.

하였다.

이 작업은 영남 내 노론을 표방한 신향의 원우 건립 활동을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운곡영당의 건립 선행이 되는 인근 고을의 사례를 일차적으로 검토하고, 영당의 건립과 훼손에 대한 전개 및 향전 이후 향촌사회의 반향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작업은 조선후기 영남지역 내 남인이 우세 속에서 신향 내지 노론층의 존재와 그 활동을 살펴봄으로써 영남사회 이해의 지평을 넓혀줄 하나의 키워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II. 18세기 영남 노론계 영당 先例와 운곡영당의 창건

### 1. 18세기 영남 노론계 院宇 先例

18세기 초 서원은 중앙 집권세력에게는 자파 세력 부식을, 재지사족에게는 향촌 주도권을 확보하는 세력 간 분기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sup>4)</sup> 영남에서도 1702년(숙종 28) 청송현 屏巖書院<sup>5)</sup> 사액과 상주목 흥암서원 창건을 시작으로 노론계 원우들이 속속 들어서는데 갑술환국 후 중앙 노론세력과 지방 관권의 지원 그리고 이에 부응한 신출노론의 협조 하에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현상은 18세기 건립된 대부분의 영남 노론계 서원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1726년(영조 4)과 1737년(영조 13) 두 차례 영남감사에 부임한 노론 강경파 유척기는 첫 시기에 안동 김상헌 서원 건립을 두 번째 시기에는 영해 부 이현일을 배향한 仁山書院 철거 및 관련자 처벌<sup>6)</sup> 등에 직접 개입하는 모

4) 고수연, 「18世紀 初 湖西地域 書院의 黨派의 性格 -朱子·宋時烈 祭享 書院을 中心으로」 『湖西史學』 29, 2000, 73쪽.

5) 병암서원은 1697년(숙종 23) 이이와 김장생을 기리기 위해 창건되었고, 1702년(숙종 28) 영남 노론계 서원으로는 처음으로 사액을 받은 상징적인 곳이다.

6)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국역 서원등록 4』, 2015, 29쪽.

습을 보였다. 예안과 迎日의 신출노론들이 李珥의 서원과 송시열 영당 건립을 직접 요청하기도 했다.<sup>7)</sup>

이 시기 영남지역에는 20여개소 노론계 원우가 확인되는데 이중 송시열을 배향한 원우가 9개소로 그 비중이 제일 높았다.<sup>8)</sup> 분포 지역은 송시열의 유배지인 거제·영해·長鬢와 유배 경유지 경주·성주·영덕, 기타 함창·영양·知禮<sup>9)</sup> 등에 각기 세워졌는데 이를 연대순으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18세기 영남지역 송시열 배향 원우 현황

순	원우명	지역	배 향 인 물	건 립	건립명분
1	新安祠	영덕	주자·송시열	1702년(숙종 28)	유배 경유지
2	盤谷書院	거제	송시열·金鎭圭·김창집	1704년(숙종 30)	유배지
3	竹林書院	장기	송시열	1707년(숙종 33)	유배지
4	老江書院	성주	송시열·권상하·한원진·윤봉구·송환기	1712년(숙종 38)	유배 경유지
5	新安書堂	함창	송시열	1722년(경종 2)	휴식처
6	仁山書院	경주	송시열	1719년(숙종 45)	유배 경유지
7	春川書院	지례	송시열	1756년(영조 31)	문인
8	雲谷影堂	영양	주자·송시열	1781년(정조 5)	지명 부합
9	金溪書堂	영해	송시열	1792년(정조 16)	유배지

- 7) 청량산박물관, 『국역 戊午日記』 호조판서 유척기 상소 ; 민속원, 2015, 175쪽.  
노론계 지방관의 영남 노론계 서원의 적극적인 지원은 빈번하게 확인이 된다. 예컨대 송시열 등을 배향한 성주목 老江書院의 경우 정철의 후손으로 1740년(영조 16) 영남 감사로 재직한 鄭益河가 강당과 齋舍를 一新하여 영당에서 서원으로 승격과 서원의 경제적 기반 구축 등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다. 채광수, 「老江書院의 연혁과 인적구성」 『민족문화논총』 60, 2015, 324쪽.
- 8) 18세기 영남에서 창건된 노론계 원우 현황은 채광수, 「경주 여주이씨 玉山派의 章山書院 건립과 운영 -조선후기 영남지역 노론계 서원 건립 사례 연구」 『한국서원학보』 4호, 2017, 113쪽 참고.
- 9) 지례에 건립된 春川書院은 송시열의 증손 宋能相의 문인 연안이씨 李宜朝가 스승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서원이다.

위 표 중 운곡영당 건립의 모델이 된 영덕현 신안사<sup>10)</sup>와 훼손의 증거가 된 함창현 신안서당 및 연대세력이 세운 영해부 금계서당은 본 영당의 건립과 훼손에 매우 큰 연관성이 있다.<sup>11)</sup> 당시 영남 노론계 원우 건립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좋은 사례이므로 양 기구에 대해서 연혁을 중심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영덕현의 신안사는 山名 ‘朱山’과 洞名 ‘新安洞’ 지명이 주자의 행적과 부합된다는 명분<sup>12)</sup>으로 1702년(숙종 28) 3월 君子洞에 주자 影幀을 봉안 후 新安祠로 창건되었다. 이때 경향의 선비들과 의논 후 권상하와 鄭濬의 지도를 받아 건립을 하였다.<sup>13)</sup>

이후 1730년(영조 6) 4월에 관문 동쪽 1리 토성리로 이간하며 廟를 集成, 사당을 新安書堂, 동재를 藏書閣, 서재는 養士齋, 누각은 鏡光이라 명명하며 서원의 면모를 갖추었다. 동시에 주자의 도통 계승자이자 영해부 유배 중 쉬어 갔다는 이유로 유생 柳重輝와 현감 洪禹集이 앞장서 송시열을 추배하였다.<sup>14)</sup> 그리고 추배 시점 서원의 경제적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보이는데 미사역서원임에도 구체적인 자료가 남아있어 소개한다.<sup>15)</sup>

---

10) 영덕현의 신안사는 신안사로도 불렀는데 여기에서는 전자로 통일한다.

11) 전자는 운곡영당에서 주자와 송시열을 봉안했다는 통문을 보냈을 때 안동향교의 답통에 “영덕의 신안사가 이미 세워졌다”라는 점과 건립과정에서 新安影堂 원장 安殷錫이 수일간 머물면서 자문, 신안사 舊本 주자 영정을 획득하는 모습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운곡영당장고-安東答通』.

후자는 운곡영당을 훼손한 경상 감사 尹光顔이 추핵 당시 훼손 근거로 함창의 신안서당 사례를 언급 하고 있기 때문이다. 『순조실록』 권11, 순조 8년 3월 2일. 둘은 서당이라 칭하고 있지만 영당에서 출발한 것이다.

12) 정현정, 「조선중기 朱子祭享 書院의 사회사적 성격」 『한국서원학보』 1, 2011, 100~108쪽에 주자제향 건립 명분에 대해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13) 영덕문화원, 「請額疏」 『국역 盈寧勝覽』, 경문사, 2011, 152~153쪽.

14) 書院騰錄에는 송시열 추배 연도를 1735년(영조 11)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여타 자료에는 1730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15) 金鎔濟 著·이완섭 譯, 「寶穀, 院範」 앞의 책, 149~150쪽.

- 寶穀은 租 80石, 콩 9石 3斗, 垞 16斗, 菜田 8斗, 垞田은 官屯으로 粟 2결이고, 復戶 48夫, 藿田 1畝이다.
- 院 아래의 16戶는 役을 없애고 院宇의 청소와 수리 및 수호를 하도록 한다.
- 院中の 元役に 陸海 等屬을 소속시키고, 다른 役이 침범할 수 없으며, 얻은 대로 보존해야 한다.
- 自備船 4隻, 院案 외 1隻, 海屬 11명, 假屬 22명, 傭生 4명, 奴 2口, 婢 2口를 준비한다.
- 太夫의 址貫는 춘추로 각 50냥이다.
- 춘추 享祀時 靑蓮菴에서 塗壁紙 각 9束, 사계절의 초하루에 別鞋 20部, 白紙 4束을 바친다.
- 寶寂菴에서 白紙 3束을 바친다.
- 開印寺에서 白紙 3束, 壯紙 2章을 바친다.
- 獅子菴와 淨水寺도 居接 때에 그러한데, 白紙 2束, 훈장 別鞋 1부를 바친다.

신안사의 경제규모는 書院田, 서원촌, 선박 5척, 院屬 37명, 원노비 4구, 屬寺 5곳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1707년(숙종 33) 원속에 대해 문묘중사 서원 30명, 사액서원 20명, 미사액서원 15명<sup>16)</sup>으로 규제했음에도 이 보다 훨씬 많은 숫자이다. 그리고 海邑 특성 상 경제 활동이 가능한 4척의 선박과 5개의 속사는 적은 수준이 아니다. 이정도 기반 마련은 官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 일이다.<sup>17)</sup>

1736년(영조 12) 한 차례 중수를 거쳐 1741년(영조 17) 휘철령으로 철폐되었다가 얼마 뒤 즉시 재건이 이루어졌던 것 같다. 이는 3년 뒤 영덕현에 西人을 자처한 신향들이 南人 구향들을 탄압할 목적으로 기획·전개되는 향전이 신안사에서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신향들은 영당 내 주자 영정이 비에 손상되자 그 죄가 두려워 송시열 배향을 꺼리던 구향 申世績 등 9인이 1744년(영조 20) 10월 26일 밤중에 담을 넘어 院宇의 자물쇠를 끊고 주자와 송시열의 영정을 훔쳐 내어 숲 속에서 불태웠다고 관청에 呈訴하였다.<sup>18)</sup>

16) 이수환, 『조선후기 서원연구』, 2001, 186쪽.

17) 당시 영남 감사는 노론강경과 閔應洙였다.

18) 『영조실록』 권61, 영조 21년 1월 12일.

영덕현에서는 이를 鎭營에 통보하여 여러 해 동안 推覈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혹독한 형장이 이어졌다. 나아가 사건은 성균관 유생들 상소로 중앙 정계로 비화되어 어사를 파견하여 진상 조사까지 이루어졌다. 그러나 조사 결과 오히려 신항들의 자작극으로 밝혀지면서 영덕현령과 연루된 관리 및 신항 무리가 처벌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sup>19)</sup> 이 사건은 2년 6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이 시기 영덕현의 신항들은 향교를 장악하고 구향과 갈등 관계에 있었는데 그 연장선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다음은 함창현에 건립된 뒤 樞절 당한 신안서당의 사례이다.<sup>20)</sup> 함창현은 조선후기 비교적 노론세<sup>21)</sup>가 강했던 곳으로 의령남씨·인천채씨·평산신씨 등이 핵심 노론계 一門으로 활동하였다<sup>22)</sup>. 이 시기 함창현에서는 김장생·兩宋·권상하 문인 배출<sup>23)</sup>, 인현왕후 출궁 반대<sup>24)</sup>·1688년(숙종 14) 南極杓의 사계문묘중사<sup>25)</sup>·송시열 辨誣 및 문묘중사<sup>26)</sup>·1721년(경종 1) 소론 토벌 상소, 1722년(경종 2) 김창집의 喪車 조문, 영남 노론계 首院 홍암서원 참여 등 친 노론계 활동들이 펼쳐졌다. 이 같은 함창현의 사정은 18세기 영남 남인을 대표하던 관료 학자 권상일의 표현에서도 잘 드러난다.

19) 『영조실록』 권65, 영조 23년 6월 16일.

20) 이하 서술은 함창향교 소장 신안서당 자료를 번역한 김정찬, 「신안서당(新安書堂) 기사」 『상주문화 26』, 2016 근거로 서술 하였기에 특별한 경우 외에는 구체적인 각주는 생략한다.

21) 여기서 노론은 서인도 포괄한 개념이다.

22) 의령남씨는 南極杓(송시열 문인) 후손, 인천채씨는 蔡夢井(김장생 문인) 후손, 평산신씨는 申碩蕃(정경세·李竣 문인, 牛栗 私淑) 후손들이 노론계를 표방하였다. 이후 등장하는 인물은 거의가 이들의 후손들이다.

23) 함창현에는 김장생 문인 2명, 송시열 문인 9명, 송준길 문인 2명, 권상하 문인 1명이 배출되었다.

24) 한국국학진흥원, 『국역 청대일기 2』 1723년(경종 3) 11월 18일, 청술, 2015, 348쪽.

25) 『숙종실록』 권19, 숙종 14년 5월 28일.

26) 辨誣疏는 南躔(의령남씨)이 지었고, 함창현 거주자로 疏首를 담당한 것은 1736년(申櫛·평산신씨), 1748년(申光朝·평산신씨), 1751년(南道輶, 의령남씨) 총 3차례였다.



들으니, 함창향교에서 服制가 禮說을 그르친다 하여 소를 올리는 일로 통문을 내어 □일에 三江에 모인다고 한다. 이는 그만둘 수 없는 일이나 우리 영남의 허다한 사람 중에서 함창 사람들이 매번 먼저 나서려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sup>27)</sup>

신안서당의 전신은 曾居書堂이다. 建堂論은 1722년(경종 2) 2월 29일 성주목에서 賜死된 김창집의 喪車가 함창현을 통과할 때 護喪 참여자에 대한 향안과 校案 墨削 사건이 발단이 되었다<sup>28)</sup>. 당시 제시된 罰目은 ‘역적의 시체를 맞이하여 지킨 그 죄는 모두가 똑같다’는 논리였다. 목삭 당한 南躔·蔡命寶·申鎭堡·李好謙 등은 같은 학교 내 공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 이튿날 書塾 건립을 결의하고, 1722년(경종 2) 11월 15일 縣 아래 曾居村에 터를 잡아 다음 해 봄에 지은 것이 증거서당이다.

이들은 이곳을 근거지로 영조 등극 후 변화된 분위기에 편승해 목삭 사건 주동자를 적발하여 향교에 그 명단과 벌목을 제시하고, 나아가 향내 대표 서원인 臨湖書院과 향사당 그리고 성군관에 통보해 양값음을 하였다. 이어 1722년 道南書院의 심원록에 노론계 상주목사 趙正萬이 삭제된 문체 향의, 1728년(영조 4) 무신난 討賊 통문 및 임원 선발<sup>29)</sup> 등 지역 노론계 활동 중심처로 자리매김 한다.

1731년(영조 7) 5월 서당이 읍내 시장과 가깝고 건물이 협소해 이건 논의가 돌았으나 터를 선정하는 문제로 중도에 포기 하였다. 그리고 1732년(영조 8) 11월 함창현 남쪽 恭儉池 근처가 송시열의 휴식처라는 명분으로 사당 건립 움직임이 있었다. 이를 위해 남전 등이 서울 각처에 통문을 보내 여론을 수렴했으나 송시열 단독 배향은 합당치 않다는 답통을 받고 일단 추진은

27) 한국국학진흥원, 앞의 책, 1724년(경종 4) 11월 18일, 청술, 2015, 394쪽.

28) 김창집 喪車를 서울로 호송한 星州 출신 羅學淳은 현풍의 광씨, 대구의 尹·全씨, 상주의 成씨, 함창의 蔡씨 가문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임무를 완수 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나학순, 『松塢遺稿』, 『夢窩先生護喪錄』

29) 당시 선정된 임원은 衛將 蔡命亨, 代將 南躔, 謀官 申鎭九, 召募將 柳玄齡·柳龜齡·李搆謙·南隆·申鎭元·蔡命千·李允醜, 日記有司 蔡命協·蔡命洪이다.

일단 중단 한다.<sup>30)</sup>

그러다가 1737년(영조 13) 봄 신진대가 利安<sup>31)</sup> 村南의 종가 祭田을 제안하여 동의를 얻어 이건설 터를 마련한다. 2월 25일 蔡徵休<sup>32)</sup>가 이를 감영에 보고하여 감사 민응수에게 綵組 20斛과 役丁 지원을 약속 받는다. 堂號는 남진이 작명한 이 지역의 옛 지명인 崇德의 ‘崇’자와 현 지명인 利安의 ‘安’을 합쳐 ‘崇安’으로 낙점이 된다. 낙성식 준비에 현감 李縑의 祭需와 役丁 기부가 있었고, 7월 16일 개최된 낙성식과 백일장에서는 신임 현감 具萬善이 참석해 부조와 詩會를 가졌다. 이때 송안서당은 서원 건물의 규모를 완비한 것으로 파악되며, 일각에서는 서당을 못 마땅히 여기는 향내 세력들이 존재했으며 이후 이건설 시에도 반대세력으로 등장한다.

1770년(영조 46) 2월 강희 후 서당의 터가 旱濕하고, 세월이 오래되어 주춧돌이 기울어 孔洞하류의 新泐로 이건을 결정한다. 이건설 대지 내 일부가 편입되는 申思宅의 발까지 125냥에 매입하여 완료되는 듯했으나 그의 사촌 申思邈<sup>33)</sup>이 억지를 부려 소송으로 결국 해결하였다. 그리고 2월 18일 임원을 분정한 뒤 본격적인 이건설 사업이 진행되어 7월 16일 결실을 거둔다. 낙성 후 당호는 다시 주자를 존모하는 마음에서 ‘崇’자를 ‘新’자로 고쳐 ‘新安書堂’으로 변경하였다. 1775년(영조 51) 12월에는 주자의 영정을 모셨으나 1786년(정조 10) 봄에 남인으로 추정되는 인사들이 영정을 능탈해 사마소에 봉안하는 일이 발생한다. 다행히 영정은 다음해 10월 12일에 서당으로 還奉되고, 그 기념으로 본읍 유생 50여명과 타읍 유생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0) 답동한 경화사족은 司諫 李榕, 正言 金相紳, 弼善 鄭匡濟, 持平 鄭洪濟·安相徽·宋國緯가 연명하였다. 후술할 영양현 운곡영당 역시 노론계 경화사족들에게 건립을 자문하는 모습이 목격된다.

31) 현재 상주시 이안면이며, 함창읍과 접해있다.

32) 채징휴는 송시열의 문인 蔡之沔의 아들로 상주지역 대표 노론계 가문의 문중서원인 雲溪書院(成瀆·申錫蕃·金三樂·成汝樞) 건립을 주도한 인물이다.

33) 서당 관련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신사막은 무신년에 역적 申弼仁의 아들로서 우리 고을의 討逆 논의가 송안서당에서 나온 이후로 사막은 이 서당 보기를 원수 보듯이 하여 지금에 와서는 백방으로 謀害했기 때문에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강론이 개최 되었다.<sup>34)</sup>

신안서당은 1788년(정조 12) 11월 3일 永同縣에 거주하는 宋煥愚가 소장한 송시열의 영정을 이봉한다. 그리고 3년 후 서원으로 승격하기 위한 방편으로 역설적이게도 남인의 영수인 채제공을 통해 시도한다. 당색이 다름에도 그에게 부탁한 것은 다름 아닌 1763년(영조 39)에 함창현 銀店 개설 금지 상소 때 채제공의 지원 속에 성공한 경험 때문으로 보여진다.<sup>35)</sup> 그러나 의도했던 것과 달리 사사로이 영정을 봉안했다는 사유로 서원 승격은 고사하고, 서당 훼손은 물론 관련 당유·현감·감사가 처벌받았으며, 영정은 魯城縣 闕里祠로 이봉 당하게 된다. 또한 堂田은 신사막의 아들 匡稷에게 돌아가는 참담한 결말로 끝이 난다.<sup>36)</sup>

한편 영양현과 이웃한 영해부 石堡<sup>37)</sup>에서도 김녕김씨 가문이 주도가 되어 1774년(영조 50) 입향조 金溪 金九興을 모신 金溪書堂을 건립한다. 그리고 1792년(정조 15) 여주 大老祠에서 송시열의 영정을 모사해 봉안하는데 성공하는데,<sup>38)</sup> 이 과정에서도 향전이 있었다.<sup>39)</sup>

이들의 송시열 영정 봉안 목적은 서원 승격을 위한 명분용일 가능성이 크며, 향전 발생의 결정적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후술할 운곡영당 역시 이들과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34) 당시 참여인원은 대략적인 함창현의 노론계 범주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35) 권태을, 「禁銀店疏行日記 研究」 『尙州文化研究』 12, 2002, 이때 疏首를 맡은 蔡命五는 1776년(정조 1) 兩宋문묘 중사 때도 疏首를 담당한 노론계 인물이다.

36) 관련 기록에는 채제공이 정조에게 잘못 전달하여 훼손되었다고 기록했지만, 이는 함창현의 남인계 사족들도 채제공에게 신안서당이 송시열의 배향처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을 것이고, 당연히 그는 남인계 입장을 대변하여 정조에게 보고했던 것이다.

37) 현재 석보면은 행정구역 상 영양군 소속이지만 조선시대 때는 영해부 소속이었다.

38) 『金溪書堂重修記』

39) 배재홍, 「조선 후기 향촌사회에서 庶孽의 존재양태와 鄉戰」 『경북사학』 15, 1992, 26쪽.

## 2. 영양현의 운곡영당 창건

영해부 속현이던 영양현은 1683년(숙종 9) 복현되었고, 다음해에 향교 설립과 英山書院 사액이 결정된다. 향교의 설립과 서원 사액은 복현을 주도한 한양조씨와 영양남씨를 필두로 13개의 諸가문에서 참여해 이루어진 성과였다. 참여한 상당수 인원이 중복되어 있어 그 참여 세력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sup>40)</sup>

이들은 자연스레 양 기구를 중심으로 향문을 주도해 나갔고, 특히 영양현은 복현 후 향안이 아닌 교안을 중심으로 양반사족의 명부를 작성하면서 향교는 향촌의 핵심 기구 역할을 하였다. 이는 영양향교 소장 執綱案·應講案·副校案·耆老會錄 등에서 충분히 그 흐름이 확인이 된다.<sup>41)</sup> 조선후기 영양의 대표적인 사족들이 망라되어 있는 이들 자료 중 집강안과 부교안이 이를 이해하는데 주요 자료가 된다.

향교의 소임을 맡아 석전제에 참석하였던 집강록은 모두 3책이 현전한다.<sup>42)</sup> 3책에 수록된 총인원은 1,010명으로 상위 5개 성씨를 분류하면 한양조씨 459명, 함양오씨 163명, 안동권씨 77명·영양남씨 50명·野城정씨 47명 등 순이다. 여기서 압도적으로 비율이 높은 한양조씨를 비롯한 특정가문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반면 운곡영당의 핵심 가문인 낙안

40) 1684년 영양향교 執綱案과 영산서원 사액 時 題名錄

구분	합계	한양조씨	영양남씨	안동권씨	함양오씨	봉화금씨	재령이씨	단양우씨	월성손씨	아성정씨	웅천주씨	영해신씨	기타
영양향교 執綱案	74	29	11	5	9	3	2	3	2	3	2	2	3
영산서원 題名錄	97	36	17	9	5	5	5	4	4	3	2	2	5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684년 英陽鄉校 執綱案」 『慶北鄉校資料集成』 I, 영남대학교출판부, 1992. 조준호, 앞의 논문(1997), 179쪽.

41) 본 자료 분석은 ‘한국학자료센터 영남권역센터’에 탑재된 영양향교 자료 해제를 참고하였다. (<http://yn.ugyo.net/town/hangkgyo>). 영양향교의 역사는 짧지만 경북 내 향교 가운데 가장 많은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42) 영양향교 執綱案 작성연대 : 1책 1684년~1784년, 2책 1723년~1769년, 3책 1890년.

오씨의 경우에는 단 1명도 등재되어 있지 않고<sup>43)</sup>, 여타 신향 가문인 죽산안씨와 김녕김씨 등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한양조씨가 주동한 이 시기 영양향교에서는 1724년(경종 4) 양사청 절목 제정, 1736년(영조 12)·1744년(영조 20) 應講案 내 講案定式 수록, 1765년(영조 41)·1777년(정조 1) 향교 절목 등의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교육적 기능 강화와 문제점을 개선시켜 나갔다. 이어 1778년(장조 2)에는 향교 守直과 관리리를 담당하는 서재교생안을 작성해 사족과 비 사족 간 명부를 구분했다. 이때 관청에서는 원문을 제정해 서재교생의 입록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였다.<sup>44)</sup> 이러한 조치는 17세기 후반 교안 등재자가 72명에서 100년 후 작성되는 1786년(정조 10)에는 155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1747년(영조 23) 영남어사를 지낸 韓光肇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영남의 풍속은 매우 비루해져서 향교에만 매달려서 향권을 차지하려고 다투는데 여념이 없다. 근래에 비로소 西人들이 생겨났는데 향품이 많아 사대부의 지위에 참여하려고 한다. 서인이 집권한 즉 교궁에서도 구향을 배척함으로 신구향간에 이처럼 서로 싸우게 된다.<sup>45)</sup>

다만 영양현에서는 18세기 후반 신향이 교임직 通同을 요구하고 구향이 수용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났고 이것이 향전의 발단이 되었다. 더구나 구향들은 향교 외에도 문중 서원을 함께 운영하며 향촌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sup>46)</sup> 이에 향교에서 주도권은 물론 교임직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신향들은 자연스레 새로운 출입처 자과 원우의 건립으로 그 활로를 모색

43) 樂安吳氏族譜 권1·2(낙안오씨 鞠軒公派 종손 吳元烈씨 소장)

44) 1778년 원문 6개 절목 중 입록 제한 관련 내용을 소개하면 一. 通講한 자 가운데 근면한 이를 西齋校生으로 선출하고 案을 작성하고 앞으로는 納物을 일절 금지할 것. 一. 校生 가운데 出闕자가 있으면 향교의 모든 교생이 齊會하여 圈點을 통해 文筆과 地處가 있는 자를 선출하고 考講을 거친 후 入錄시킴. 一. 每朔望 사이에 試講을 실시하고 상과 벌을 내릴 것.

45) 김준형, 앞의 논문, 176쪽 『승정원일기』 영조 23년 6월 16일 재인용.

46) 영양지방 문중 원우에 대해서는 조준호, 앞의 논문(1997), 213쪽 참고.

하게 된다. 더구나 인근 고을에는 신향이 건립한 노론계 원우들이 세워져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자극받은 영양현 신향들은 건립 명분으로 縣內의 甘川에 주자, 송시열과 관련된 雲谷洞과 宋洞 지명이 있고, 산 이름과 동네 호칭이 양현의 杖屨所와 부합 한다는 사실을 내세웠다<sup>47)</sup>. 여기서 감천은 樂安吳氏 입향조와 후손들의 묘가 산재해 있는 공간이자 세거지이다.

감천의 낙안오씨는 16세기 말 영양 입향조 현감 吳時俊의 후예들로 다수의 무고급제자를 배출한 가문이자, 향촌사회에서 영산서원 창건에 참여 및 교안 입록 등 시족 일원으로 존재했다. 이 가문이 노론계로 좌정한 이유는 서원 건립을 통한 향권 도전 외에 다른 목적을 찾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조선후기 영남 서인계 가문에서 보이는 서인계 관료 또는 학자와 교유·문인 및 활동 그리고 인조반정과 무신난 후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전향 등 어떤 형태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낙안오씨와 연대한 죽산안씨와 함양오씨<sup>48)</sup>는 중첩적 혼인 관계에 의한 것이었으며, 김녕김씨는 노론계리는 동지 의식이 건립에 동참한 배경이 되었다.<sup>49)</sup>

운곡영당은 낙안오씨 가문의 吳文煥이 건립을 발의하여 1780년(정조 4) 3월 6일 터를 닦고, 22일 기둥을, 28일에는 상량이 이루어졌다. 成造都監에는 吳孟欽이 監役都監에는 縣村의 安思泰가 맡아 5월 29일 10칸의 書舍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때 남인계 영산서원 원장 趙居默 등<sup>50)</sup>을 중심으로 堂事를 문제 삼는 등 마찰이 있었으나 다행히 영양현감 沈公藝가 내방해 官奴 2명과 백자목 10여 그루를 帖給해 주면서 해결되었다.

건물 외형이 갖추어지자 7월 25일 堂儒 62명이 20냥을 각출하고 粗 1석

47) 建院者들은 동일한 이유로 창건된 사례로서 연천 考亭祠, 해주 백이숙제 사당, 尼城 闕里祠 등을 언급하면서 건립 명분으로 부족하지 않음을 표방했다.

48) 영양의 함양오씨는 대부분이 남인계임에도 특이하게 영당 건립에 참여한 吳載浩家(貫 함양)는 죽산안씨와의 인척 관계가 어느 정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49) 조준호, 앞의 논문(1997), 225~228쪽에 참여 가문에 대한 분석이 있어 참고가 된다.

50) 院長 조거목을 비롯해 진사 趙居善, 士人 趙居廣·趙居益·趙性復, 南別監 國英, 權昌德, 辛以穰이다.

씩을 배정한 다음 각 마을에 수합유사 분정이 있었다. 9월 도내 열읍에 건립 사실과 부조 요청을 통문하자 안동·인동·선산향교에서 동조하는 答通이 당도했다. 안동향교 通首는 안동의 대표적 노론계인 佳丘의 順흥안씨 安明述<sup>51)</sup>이 都有司로 재임하고 있어 가능했다. 인동향교의 경우 1797년(정조 21) 경주의 노론계 章山祠의 서원 승격을 발의하는 등 친 노론계이며, 선산향교 답통에는 校任 직임이 보이지 않기에 개별적 차원에서 보낸 것으로 추측된다.

9월 18일 향례 실시했고 9월 21일에는 영덕현의 신안사 원장 安殷錫이 서당에 도착해 수일간 머물며 堂事에 대한 제반실무를 논의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11월 12일 상경해 감사 徐有寧<sup>52)</sup> 등으로 부터 木州는 금지 하나 영정은 법령에 관계되지 않는다는 자문을 받고, 서울 任樂周<sup>53)</sup>의 도움으로 찰방 申愷가 소장한 신안사 영정 舊本을 移摸했다. 당시 서울에 머문 吳伯欽은 竹洞의 李右相 등에게 이 사실을 품의하고, 영정 예절에 대해서는 성균관 장의 任晦周와 상의하여 다음해 2월 10일 송시열 영정 이봉에 이른다. 특히 임낙주의 주선으로 성균관과 예조로부터 경유처에 있는 향교들에게 이봉을 지원하라는 통문과 공문을 하달하게 하였다.<sup>54)</sup>

3월 8일을 봉안일로 선정해서 佳谷 順흥안씨 가문에 봉안축문과 상량문<sup>55)</sup>을 받고, 書堂記는 향내 함양오씨 가문의 吳達浩에게 받아 최종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다음날 갑작스레 남인 南承萬·趙居益 등 100여명이 서원 신설 금령을 어긴 이유로 반대 訴狀을 本官에 올림으로써 앞으로 전개될 치열한 향전을 암시했다.

51) 안명일은 안동 西澗祠(김상헌 享) 원장, 경주 章山書院(李全仁 享) 건립에 깊이 간여한 이 시기 영남노론의 핵심 인물이다. 1786년(정조 10) 중간기 역시 그가 짓는 등 운곡영당장고 전체 내용도 안명일에게 자료를 주고 정리한 것이 아닌가 조심스레 추측해 볼 수 있다.

52) 서유녕은 1758년(영조 34)~1759년(영조 35) 영덕현령으로 재직한 바 있다.

53) 운곡영당 관련자들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임낙주의 도움을 받는 모습이 목격 된다.

54) 수신처는 廣州·利川·忠州·聞慶·龍宮·禮泉·安東·眞寶·英陽 등이며, 당시 예조판서는 金燧이다.

55) 처음에는 안동 법전 노론계 가문의 진주강씨 姜潤에게 부탁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럼에도 3월 11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안식이 시행되었고,<sup>56)</sup> 陳設은 권상하 영당 제례를 따랐으며 執綱에는 원장 金大運, 齋有司 安祥鳳·吳伯欽이 차정되었다. 영당의 형식을 취한 것은 숙종 후기부터 서원 신설 명령이 강화되자 이를 피해 영당으로 건립<sup>57)</sup>했다가 강당과 재사를 구비한 뒤 서원으로 승격시키는 보편적 현상이다.

봉안식을 마쳤음에도 반대파가 감영에 정소함으로써 영당 당유 4명이 체포되는 사태가 이어졌다. 영당측에서는 서울의 임낙주에게 부탁해 발급받은 예조 공문과 성균관 통문 그리고 운곡영당의 의견서를 모아 감영에 제출한 후에야 석방 될 수 있었다. 이 문서는 향후 영당 건립의 정당성을 거론할 때 핵심 증거로 인용되었다. 사태가 수습되자 윤5월 7일 남인계 사족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서당 뒤편에 사당을 지어 영정을 봉안했고, 고을 수령 宋致淵과 신임 李命圭도 瞻拜차 내방하였다. 영당 건립의 이면에는 18세기 후반 이후 강화된 수령권과 결탁한 세력들에게 우호적인 향촌사회 분위기와 관련성이 크다.<sup>58)</sup>

### III. 세 번의 휘철과 향촌 사회의 반항<sup>59)</sup>

1781년(정조 5) 9월 경상감사에 소론계 趙時俊<sup>60)</sup>이 재부임하면서 운곡영

---

56) 正位 헌관은 任樂周, 配位 헌관은 金大運, 大祝 吳伯欽, 執禮 白昇絢, 陳設 金鼎漢, 謁者 吳載浩, 贊引 安思謙, 東唱 金顯東, 西唱 李錫彩, 司饗 金鼎大, 奉饌 吳仲欽, 奉香 申相周, 奉爵 吳相漢, 尊爵 南爾鐸, 配位司饗 金鼎呂, 奉爵 吳相義, 尊爵 金佑東이다. 당시 영양현감은 참석하지 않았다.

57) 정만조, 「英祖 17年の 祠院毀撤」 『朝鮮時代 書院研究』, 집문당, 1997, 295쪽.

58) 고석규, 앞의 논문(1997), 159쪽.

59) 이하 서술은 『운곡영당장고』에 의거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를 달지 않는다.

60) 조시준(1730~1809) : 貫 豐壤. 改名 趙載俊. 영조 전반기 소론계로 탕평을 주도했던 조문명과 조현명의 從姪이다. 그는 1780년(정조 4) 2월~1781년 1월, 1781년 9월~1782년 12월 두 차례씩 경상감사를 역임했다.



당의 정세가 급변한다. 반대파인 趙貫道와 吳廷漢 등이 서원을 신설했다는 혐의를 씌워 영문에 정소하자 조감사는 이들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영당도 금령에 저촉됨을 들어 樞策 공문을 영양현에 내린다. 이에 본관 이명규는 먼저 영당 관계자들을 잡아 가두었다. 아울러 영문에 정소한 조관도와 오정한이 주동이 되어 군정과 육방 하인을 이끌고 영당에 난입해 당유를 구타하고, 영정을 빼앗아 영덕현 신안사로 보내버렸다. 이로 인해 당유 朴龍五 등이 사망하고,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결국 영당 측은 9월 안명일에게 부촉하여 운곡영당기를 남기고, 당유들은 옛터에 紙牌로 향례를 지내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다.

1781년(정조 5) 1차 樞策은 소론계 조 감사 부임과 무관하지 않으며, 그의 이러한 인식은 동년 12월 28일 영남의 十弊 상소 내 원우의 新疊設 嚴禁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sup>61)</sup> 물론 樞策의 보다 근본적 이유는 향권을 두고 신향들의 성장을 우려한 남입계 세력의 끈질긴 반대가 컸다. 한편 1783년(정조 7) 신임 감사 노론계 이병모<sup>62)</sup>가 부임하자 樞策의 부당성을 주장<sup>63)</sup>하며 영정의 還奉을 청했으나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

樞策 5년 뒤 영조연간 朝野에 파란을 일으킨 안동 김상헌 서원의 후신 西礪祠가 1786년(정조 10) 사액된 것을 계기로 다시 한번 본격적인 중건에 나선다<sup>64)</sup>. 齋會에서 복설 계획이 수립되자 옛터 뒤에 12월 12일 터를 닦고 15일 상량, 20일 도내 중건 통문 발송, 21일 蓋瓦 등 신속히 일을 진행시켰다. 여기에 신안사에 보관된 기존 영정을 還奉하고자 했으나 감영의 공문이 없는 이봉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영정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26일 동향과 열읍의 유림 수백명이 회합한 가운데 紙牌 移安禮가 거행되어 중건의

61) 『정조실록』 권12, 정조 5년 12월 28일.

62) 이단하의 현손인 이병모(1742~1806)는 정조 중반까지 노론 시파를 견지했으나 벽파의 입장으로 轉身한 인물이다.

63) 樞策 부당함의 근거는 성균관과 예조에 허락을 얻은 일이고, 서당에 영정을 안치한 것일 뿐 서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64) 운곡영당 운영자들은 1786년 4월 서간사를 방문해 사액을 축하하고 부조를 한 바 있다.

뜻을 이루었다. 그러나 다음날 반대파는 즉각 서원 신설 금령을 들어 권위된 영양현감을 대신해 眞寶縣 檢官 洪善輔에게 呈訴하여 영당 운영자 安祥駟·金鼎新·吳仲欽을 牢囚하였다. 이렇게 운곡영당의 중건은 재차 물거품이 되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두 번의 褫職을 경험한 운곡영당 측은 이 문제와 관련해 이전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강경하게 대응한다. 그 양상은 1787년(정조 21)부터 1803년(순조 3) 5월까지 지속된 通文·呈訴 등의 활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 通文·呈訴 양상

순	연월일	문서명	발신	수신	주요내용
1	1786. 12.20	通道內士林	영양향교	列邑	◦도내 중건을 알리는 통문
2	1787. 1.17	安東答通	안동향교	영양향교	◦褫職의 부당성 동조 답통
3	1787. 1.20	善山發通	선산향교	영양향교	◦褫職 세력 道會 時 징벌 제안
4	1787. 1.28	仁同發通	인동향교	영양향교	◦褫職 세력 道會 時 징벌 제안
5	1787. 2.15	尙州道會所 通文	尙州道會 所	영양향교	◦褫職 세력 성균관에 通告 결정
6	1787. 2	성균관通文	성균관	영양향교	◦褫職 세력 罰目 발송
7	1787. 2	성균관回通	성균관	영양향교	◦罰目 : 永削付黃 ◦대상 : 吳益鎬 : 意在黨惡 趙觀道 : 力沮公議
8	1787. 2	道峯書院 四忠祠 合通	道峯書院 四忠祠	영양향교	◦성균관 極罰 公議 지지
9	1787. 2.17	大老祠 答通	大老祠	영양향교	◦성균관 極罰 公議 지지
10	1787. 2	呈文	운곡영당	監營	◦褫職의 부당함 호소 → 退題
11	1787. 2	呈文	운곡영당	감영 진보현감 청송현감	◦褫職의 부당함과 滯囚 석방 호소 ◦감영 題 : 조사 후 통보 ◦진보현 題 : 紙牌 봉안은 無禮 ◦청송현 題 : 紙牌 봉안은 無禮
12	1787. 5	呈單	성균관	大司成 金履翼	◦褫職의 부당함 호소

13	1787. 5	呈禮曹文		禮曹判書 徐有隣	◦ 건립 公論 형성 주장
14	1878. 8.17	上言		正祖	◦ 영당 복설 호소
15	1802. 2	呈訴	운곡영당	청송현감	◦ 영덕 新安影堂 영정 환봉 호소 ◦ 題 : 公議가 결집되어야 가능
16	1802. 4	呈訴	운곡영당	감영	◦ 영덕 新安影堂 영정 환봉 호소 ◦ 題 : 불가
17	1803. 4	京中通文	운곡영당	판서 趙鎭寬 외 74명	◦ 영정 봉안의 지지를 당부한 통문
18	1803. 4	성균관通文	성균관	운곡영당	◦ 영정 還奉 합당 통문
19	1803. 5	議送呈	운곡영당	감영	◦ 성균관의 통문 문 ◦ 題 : 환봉 허락
20	1803. 5.12	營關	감영	영양현감	◦ 감사가 성균관 통문에 의거 영덕현에 轉送
21	1803. 5	盈德縣移文	영양현감	영덕현령	◦ 감영의 문서 전달
22	1803. 5	盈德縣回移	영덕현령	영양현령	◦ 移安을 거행 하겠다는 문서
23	1803. 5	還奉時 盈德縣移文	영양현감	영덕현령	◦ 還安에 차질 없도록 부탁한 문서
24	1803. 5	盈德縣回移	영덕현감	영양현령	◦ 운곡영당 유생에게 영정을 주어서 보냈다는 문서

운곡영당은 급히 지폐를 봉안한 다음 휘철의 부당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열읍에 통문해 안동·선산·인동향교로부터 1787년(정조 11) 2월 개최되는 道會 때 휘철 관련자 징벌을 제안하는 답장을 받는다. 실제로 2월 15일 상주 도회<sup>65)</sup>에서 이 제안이 수용되면서 이들을 성균관에 통지해 징벌하기로 결정한다. 그달 성균관 장의 孟賢大와 유사 韓海昇 명의로 영양향교에 통문이 도착하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다.

65) 상주도회에 참가한 40명의 인사 다수가 영남 노론계 首院 홍암서원 심원록에 수록된 것으로 보아 노론계 인물들이다.

귀읍의 운곡영당에 관한 유생의 통문을 보니 晦菴과 尤齋 두 선생의 영당을 짓는 것에 대해 일종의 모순되는 논의가 있는데다 官營에 소장을 내어 끝내 애통하게도 韋철하는 것에 귀결되었으니, 어찌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대저 雲谷과 宋洞이라는 이름이 만약 우연이 아니라면 비록 서원을 세워 사액을 칭하더라도 오히려 마땅하다고 하겠고, 몇 칸 집을 지어 影幀을 봉안하고 滄洲의 紙牌를 대략 모방하는 데에 이르러서도 어찌 불가함이 있겠습니까마는 또한 저지하고 무너뜨리는 계책을 주장하여 금함을 무릅쓰는 일로 몰아가니 이는 진실로 어떠한 마음입니까?

비록 조정에서 금지하는 것으로 말하더라도 鄉祠宇로 나라에서 내린 편액을 받지 못했는데도 마음대로 제향을 올린 것에 과연 법으로 금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黨塾에서 선현의 영정을 받드는 것에 금령을 베푼다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당초 시행하는 즈음에 이미 예조의 背關에서 보낸 牒報의 뒷면에 쓴 關文에 성균관의 諭示가 있었다고 하니 또한 중하게 여기는 바를 절로 구분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吳益鎬·趙觀道 등은 또한 무슨 마음으로 몰래 공정치 못한 계책을 품어 韋철하는 일을 권한단 말입니까? 이는 진실로 사림이 한탄하고 공론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귀교에서 아직 유생들이 정한 벌칙을 시행하지 않고 조급하게 서두른다고 하니 진실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눌 수 없습니다. 성균관에서는 우선 極罰으로써 대략 경계하고 면려하는 뜻을 보이므로 罪目を 귀교에 보낼 것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께서 校院에 청해 뒷날의 폐단을 징계하시고, 운곡의 유생들로 하여금 공경히 두 선생의 영정을 받들어 길이 공부하는 장소로 삼게 한다면 다시는 어지러운 단서가 없을 것입니다. 곧장 회답해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sup>66)</sup>

즉 성균관에서는 향촌에는 미 사액 사우가 많고 더욱이 운곡영당은 애초 예조와 성균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문제될 것이 없다면 韋철을 주도한 吳益鎬와 趙觀道<sup>67)</sup>에 대한 극벌을 지시한다. 이에 전자는 ‘意在黨惡’, 후자는 ‘力沮公議’라는 죄명으로 永削付黃<sup>68)</sup>의 벌목이 내려온다. 이때 중앙의 노

66) 『雲谷影堂掌故』 「太學回通本堂」

67) 吳益鎬(貫 함양)와 趙觀道(貫 한양)는 영산서원 운영에 간여했고, 영양향교 임원명부로 볼 수 있는 집강안에도 등재되어 있다.

론 핵심 원우인 道峯書院,<sup>69)</sup> 四忠祠,<sup>70)</sup> 대로사<sup>71)</sup>의 지지도 뒤따랐다. 이러한 흐름에 고무된 증견서력들은 감영에 서원은 신설이 아닌 紙牌를 모신 서당임을 강조하며 훼손의 부당성을 청했다. 하지만 감사<sup>72)</sup>가 이를 물리자 예조 背關과 성균관 通諭를 증거로 거둬 滯囚의 석방을 요구했으나 더 조사하겠다는 미온적인 답변만 돌아왔다.

한편 이를 조사한 진보관 홍선보와 靑松官 鄭啓淳은 지패 봉안은 선현을 존모하는 예의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자 운곡영당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행동에 돌입한다. 5월 서간사 봉안문을 지은바 있는 閔彝顯<sup>73)</sup>을 비롯한 여주의 선비<sup>74)</sup>들과 상의해 성균관 대사성과 예조판서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고, 급기야 8월 17일에는 상언하기에 이른다.<sup>75)</sup> 상언의 주 내용은 예조 許題와 성균관 回諭를 받아 건립했음에도 조감사에게 부당히 훼손 당했다는 것이다. 그 뒤 또 滄州紙牌의 사례를 모방해 壇을 설치해 지패로 禮를 행하며 수칸의 屋子를 증견했으나 屋은 원우가 아니며, 榜은 위판과 다름에도 김감사가

68) 성균관 유생의 명부에서 영원히 이름을 삭제하는 永削과 이름에 누린 종이쪽지를 붙여서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付黃을 합한 별이다.

69) 道峯書院 :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원으로 1573년(선조 6) 조광조를 배향하여 창건과 사액을 받았다. 1696년(숙종 22) 송시열을 추배하였으나 1723년(경종 3) 출향되어 상당한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었다가 1775년(영조 51) 다시 배향되었다.

70) 四忠祠 : 경기도 하남시 상산곡동에 소재하며 1725년(영조 1) 노론 4대신 김창집·이이명·이건명·조태채를 배향자로 건립된 서원이다. 이 서원은 노론·소론 사이의 시비에 따라 철폐와 복설이 거듭되는 우여곡절을 겪을 만큼 당색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으나, 영조에게 충성을 다한 4대신의 서원이라 하여 특별한 은전을 받았다. 1868년(고종 5) 대원군 서원철폐 때도 훼손되지 않고 존속되었다.

71) 大老祠 : 경기도 여주시 하동에 소재하며, 1785년(정조 9) 왕명으로 송시열을 배향하기 위해 세워졌다. 그 해 송시열에 대한 존칭인 大老의 명칭을 붙여 '대로사'로 사액되었다. 대원군 서원철폐 때 '강한사'로 院號를 변경해 존치하였다.

72) 당시 경상감사로 재직한 金尙集(1786년 8월~1787년 5월)의 당색은 소론계이다. 영조 후반기 정승으로 영조의 신임을 받은 金尙喆이 그의 再從이다.

73) 閔彝顯 : 본관은 驪興, 증조부 閔鎭厚, 조부 閔遇洙, 부친 閔百兼, 아우 閔鍾顯과 함께 金亮行에게 수학, 1787년 당시 사헌부장령에 부임, 史學과 경제방면에 능통하였다.

74) 여주에서 만나 상의한 인물은 민이현, 閔鍾顯, 李城輔, 元百孫, 尹錫東이다.

75) 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 관찬사료에는 上言이 확인되지 않아 올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훼손하고 주관자를 수감한 사실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당 증건 계획은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했던 것 같다.

영당측은 여기에 포기하지 않고 1802년(순조 2) 2월 노론계 감사 남공철<sup>76)</sup>의 부임과 때를 맞추어 다시금 증건을 재추진한다. 2월과 4월 본읍과 감영에 증건 의사를 타진했지만 공의가 결집 되지 않고, 금령과 예법에 상충되기에 불가하다는 題辭를 수급한다. 다음해 4월 기존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먼저 서울의 고위관료를 비롯한 79명<sup>77)</sup>에게 영당을 훼손한 세력은 이 시기 관직이 추탈된 역적 趙德鄰<sup>78)</sup>의 후손이라는 점을 부각시킨 통문을 보내 여론을 조성한 다음 성균관으로부터 還安 공문을 발급 받음으로써 그 의도한 목적을 달성한다. 5월에 吳楨國·金奎錫·安成範 등 26명이 연명하여 감영에 議送하자 이에 남 감사는 “서울로부터 본관에 마땅히 보내 도착한 것이 있으니 공의를 쫓아 처분할 것이다”라는 명을 내린다. 그리고 성균관 공문에

76) 남공철은 경상 감사 이임 후에도 함양 藍溪書院 京院長에 취임하는 등 영남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 한국학자료센터 한국고문서 자료관, 『고문서집성 24 - 藍溪書院篇』 「1795~1852년 經任案」 (<http://archive.aks.ac.kr/>)

77) 영남 노론계에서 중앙관료들에게 자신들의 의사와 지지 여론 형성 과정을 살필 수 있는 구체적 활동이기에 자못 흥미롭다. 수신자 선정 기준은 당연히 중앙의 노론계 인사일 것으로 판단되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판서 趙鎭寬·徐邁修·黃昇源, 判尹 洪義謨, 참관 金義淳·金勉柱·吳載紹·李魯春·金達淳·李肇源, 佐郎 李審度·南周獻, 令 兪常柱, 主簿 李義淵·李翊會, 直長 李光憲·李憲成, 奉事 朴和文·金在源·李寧載·李魯簡·權丕應, 承旨 金履度·李存秀·沈象奎·金近淳·朴宗慶·閔命憐·張錫胤, 校理 洪夷周·元在明·李晦祥·李基憲·李東煥, 正言 徐有恂·李惟命, 典籍 徐能輔, 注書 洪遇燮·李장, 校官 李士+ 翁, 參奉 金基紘, 進士 金箕懋·李愚在·尹致堯·趙萬永·任履周·李在誠·李在業·鄭觀綏·洪集圭·李英顯·洪俊謨·金鎰·兪平柱·尹應大·李紹九, 碩士 金相休·黃基善·申緝·李止淵·李觀九·沈能問·李鍾仁·朴齊奎·李魯元·吳羽祥·徐相祿·沈宜稷·權中任·李憲琦·李教憲·李鶴秀·朴光浩·金魯淵·金迪根 총 75명이다. 이 가운데 김면주와 김달순 이름에는 별도의 표식이 되어 있어 주목이 된다.

78) 조덕린(1658~1737)의 본관은 한양, 호는 玉川으로 영양 주실마을에 태어났다. 1691년(숙종 17) 문과급제 후 여러 관직을 역임하다가 1725년(영조 1) 올린 상소에 노론 비난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사유로 종성으로 유배되었다. 1727년(영조 3) 정미 환국 때 해배 되었으나 1736년(영조 12) 서원 남설 반대 상소 때 노론의 탄핵을 받아 제주 유배형을 받아 가는 도중 강진에서 사망하였다. 1789년(정조 13) 復官되었다가 1803년(순조 3) 다시 관작을 추탈 당하였다.

의거 영양현에 환봉을 허락하는 공문을 보냈고, 마침내 5월 27일 영덕현에서 영양현 재사에 임시 안치하였다. 이와 함께 현감 朴弘壽의 적극적인 후원하에 6월 29일 봉안일을 목표로 묘우 공역이 진행되었고, 완공 후에도 받 1石 2斗 55刀落只와 논 10두락지를 획급해 주었다.<sup>79)</sup>

이에 운곡영당에서는 중건 내력과 수호 완문을 남겼다. 『운곡영당장고』의 기록은 1803년(순조 3) 중건하는 여기까지이다. 그러나 외부의 힘을 빌려 중건된 운곡영당의 운명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노론을 지향하며 향권을 위협하는 운곡영당의 존재는 향촌 내 남인과의 갈등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중대사였다. 이를 둘러싸고 양측의 치열한 대립과 공방이 5~6년간 계속 이어졌고,<sup>80)</sup> 추후 또 다시 휘철이라는 극단적인 사태가 초래된다.<sup>81)</sup> 더욱이 3차 휘철은 중앙 정부로 까지 비화되기에 이른다. 실록·승정원일기·일성록에 그 전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이 있어 휘철 및 처리 과정을 재구성해 보자.

1806년(순조 6) 2월 부임한 소론계 감사 尹光顏<sup>82)</sup>은 11월 26일 冒設한 祠院들을 深弊處로 판단하고 법전에 근거해 열읍에 휘철 공문과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다.<sup>83)</sup> 영양현에서도 이를 운곡영당에 下帖해 자진 철거를 통보했으나 영당측에서 완강히 거절하자 현감 조석륜은 12월 4일 직접 校吏와 남인유생을 동원해 휘철에 돌입한다. 조현감의 牒報에 따르면 도착한 영당에는 신향배들이 태반이었는데 다수는 물러가고 15~16명만이 남

79) 이때 중건기도 영양현감 박홍수가 지었다.

80) 이 사건을 조사한 정동관은 이때를 ‘물과 같이 서로 呈訴하여 刑配를 당했고 5~6년간 영양읍이 원수처럼 싸우는 장이되어 조제의 희망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갈등이 노정되고 있었다.

81) 3차 휘철 관련 선행 연구로는 고석규, 앞의 논문(1997), 149~159쪽. 조준호, 앞의 논문(1997), 219~223쪽 3차 휘철에 대한 대략적인 검토가 있다.

82) 경상감사(1806. 2~1808. 1) 윤광안은 尹元擧의 5대손으로 소론계의 핵심 가문 출신이다.

83) 윤광안의 법적 근거는 “대전통편에서는 외방 싸우는 冒禁으로 창설하면 관찰사는 拿處, 수령은 告身 3등 율에 논하며 首創한 유생은 멀리 유배 보낸다”는 것이다. 『일성록』 순조 8년 8월 4일 1일(정묘)

아 있었다. 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로 유혈사태가 빚어졌고, 강력하게 저항한 인사 10명을 결박하였다. 특히 몽둥이를 들고 作拏한 吳載浩를 비롯한 安思直·吳尙欽·吳翰東·金鐔 5명은 후일 영덕현에 하옥되었다. 또한 사당에는 서원 출입이 금지된 부녀자들이 칼을 들고 포위하고 있는 것을 해산시키기도 하였다. 그런 다음 당유와 校任으로 하여 영정을 동요 없이 봉출해 향당에 우선 임시 봉안 후 신안사에 이봉했다. 무너진 당우의 재목과 기와는 관청 소유로 넘기고, 堂案과 기타 문적은 상부에 보내 버렸다. 牒報를 접한 윤감사는 훼손의 정당성을,

- 一則 국가의 朝制를 어기거나 지키지 않았다.
- 一則 선현의 影像을 더럽게 봉안할 수 없다.
- 一則 본향 무뢰배의 자작한 標榜과 元儒의 상호간의 쟁투가 무한한 변괴가 거듭 일어나는 것을 초래함이 있다.

이상 세 가지 사항의 폐해가 있었기 때문이라 밝혔다.<sup>84)</sup> 남인의 최종 승리로 귀결되는 듯 보였던 이 문제는 영당 측에서 성균관에 通告하면서 사건은 더욱 확대가 된다. 1808년(순조 8) 3월 2일 성균관은 훼손의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임금에게 진계하였다.

만약 祠院에 대한 禁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는 수천 리에 扁額을 내리지 않은 사원들이 별처럼 흩어져 벌려 있다 할 수 있고 鄉先生·邑大夫는 대부분 丹腹의 묘우를 가지고 향기로운 의식을 향사하고 있는데도, 有司가 죄다 糾禁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진실로 이미 세운 묘우를 경솔하게 허물기 어려운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道가 주자와 같고 功이 주자와 같아 천하에서 가가호호마다 존송할 만하다면, 더욱 어떻게 제일 먼저 파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조정에서는 금하는 바는 대개 新倉만 금하는 것입니다. 윤광안이 법에 의거해 령을 내린 것으로 바랬다면 응당 부당하게 건립된 여러 사당들을 모두

84) 『순조실록』 권11, 순조 8년 3월 2일, 『승정원일기』, 순조 8년 3월 2일.



훼손하여야 합니다. 주자의 영당에 이르러 광안이 멋대로 한 것이 아니고 혹 부득이 하게 지경에 있으며 마땅히 廟堂에 稟하고 성군관에 상의해야 하는 그 사체가 정중한데 그 큰일을 저지른 것을 삼가 살펴야 하는 것이 가 합니다.<sup>85)</sup>

우리나라에는 미사액 원수가 수없이 많고, 새롭게 창건한 것만 금지하므로 본 영당은 그 대상이 아니다. 만약 윤감사가 법에 의거해 슈을 내렸다면 미사액 사당 모두를 훼손 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히 주자 영당의 경우에는 묘당에 보고하고 성군관에 상의를 했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순조는 엄중한 실상 조사를 하고했고 신임 경상감사 鄭東觀<sup>86)</sup>은 參覈官<sup>87)</sup>을 구성해 진상 조사에 착수한다. 그리고 추핵 후 올린 事實馳啟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진다. 영당은 신설이 아닌 중건임을 전제한 뒤 훼손 과정에서 비석 파쇄, 皇朝列聖紀年·국기관·대로서 비문 및 어필 印本 등 소각했으며, 특히 영정을 이봉하는 예절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사실을 적기 하였다.

이에 비변사에서는 상급 관청에 보고 누락과 이봉 예절에 물의를 일으킨 윤광안과 조석륜의 추문을 청했고 순조는 이를 윤허한다. 반면 윤광안은 의금부 공초에서 ‘훼손의 이유를 본 영당은 향촌의 深弊處여서 누차 훼손될 바 있고, 대전통편에 영당 特設은 도신이 심의하여 처분하는 사항이다. 또한 예조에 보고 하지 않은 것은 1791년(정조 15) 함창 신안서당 선례에 의거한 일’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항변은 기각되고 그는 무주부, 훼손 감행자인 조석륜은 거제부, 훼손을 주도한 구향 조정신과 校奴 崔先伊는 祥原郡과 谷山府에 각각 정배 되는 것으로 일단락 된다.<sup>88)</sup> 같은 해 9월 관학유생들이 올린 운곡영당 사액소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85) 『순조실록』 권11, 순조 8년 3월 2일, 『승정원일기』, 순조 8년 3월 2일. 그리고 상소 말미에 윤광안은 辛壬土禍와 관련된 尹愬教의 손자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86) 경상감사(1807. 12~1809. 4) 정동관은 실무형관료로 인조·효종·현종 연간 정국을 이끌었던 鄭太和의 5대손이다.

87) 진주목사 李洛秀, 대구관관 鄭冕綬, 선산부사 李魯在, 청도군수 尹守翼, 함양군수 南周獻, 영덕현령 尹彝鉉, 현풍현감 李志淵, 의흥현감 尹時東 총 8명이다. 『일성록』 순조 8년(1808) 4월 1일.

88) 『일성록』 순조 8(1808) 8년 4월 1일.

운곡영당은 3번의 건립과 3번의 훼손이 진행될 정도로 영남 노론계를 표방한 원우 중 가장 격심한 갈등을 겪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양측은 왜 이토록 건립과 훼손에 집착했을까? 근본 원인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향촌 계몽이 다툼에서 기인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영양현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별한 형태로 표출된 것일 따름이다.

이 향전의 반향은 영양현 내 기존 사족 지배 질서를 더욱 강화하고 공고히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일반적으로 향교는 18세기 이후 신향들이 장악되는 곳이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17세기 말 복원된 영양현에는 문과급제자가 4명<sup>89)</sup>에 불과할 정도로 관직 진출자가 한미했고, 향안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영양현의 사족들의 특권 보장의 가장 유용한 수단은 향교와 서원 임원직이나 최소 校院案의 등재였다.<sup>90)</sup>

영양향교에는 1778년(정조 2)부터 1830년(순조 30)까지 서재교생안만 있을 뿐 사족의 명부 청금록은 공백기로 남아있다. 그 이유는 1830년 재등장하는 부교안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1786년(정조 10) 교안에는 운곡영당 건립의 주체 함양오씨 7명, 낙안오씨 5명, 죽산안씨 5명 등 총 22명<sup>91)</sup>이 등재되어 있었으나 1830년에는 모두 사라진다. 이는 운곡영당을 최종 훼손한 구향들이 기존 교안에 입록된 신향들을 削名하고, 교안을 新刊했기 때문이다<sup>92)</sup>. 부교안의 인적구성은 앞서 언급한 교안의 성씨 분류와 대동소이한 만큼 신향을 철저히 배제한 폐쇄성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원본을 副本한 부교안은 향전의 실상이 반영된 결과였다. 이러한 모습은 19세기 후반

89) 문과 급제자 4명 모두 향촌에서 가장 강력한 한양조씨 가문에서 배출되면서 그들의 위상을 더욱 높여주었다.

90) 유기선, 『17~18세기 상주향교의 靑衿儒生』,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에 따르면 영남에서 신향 즉 노론 세력의 힘이 가장 강했던 상주목에서도 일시적 변동은 있었으나 구향들이 향교 주도권을 한말까지 이어갔다.

91) 운곡영당장고와 관찬사료에서 발췌한 영당 참여자는 87명이 확인되며, 문과는 물론 생원·진사 입격자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중 교안에 등재된 인물은 모두 22명이다.

92) 1830년 이전 교안 내 삭명자는 20명(17세기 후반 교안 8명·1786년 교안 12명)인데 이들이 그 대상으로 추정 된다.

작성된 지역 내 원로들로 구성된 기로회 명부<sup>93)</sup>에도 상기의 양상이 확인이 된다. 더구나 영양현은 퇴계학 적통을 계승한 이현일과 그 후손들의 세거지이며, 그의 문인이 안동과 봉화에 이어 3번째<sup>94)</sup>로 많이 배출된 지역적 특성상 남인 이외 색목은 용납되기 어려웠다.

운곡영당의 치폐사건은 향촌 내 우위를 지속하기 위해 중앙으로부터 인정 받은 영당임에도 3차례나 훼손할 수밖에 없었던 남인 구향들에게는 절박한 문제였으며, 동시에 3차례나 영당 건립을 시도할 만큼 성장한 노론의 신향들이 관권을 매개로 향권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충돌한 사건이었다.

이후 영양현에는 단 1개소의 노론계 원우도 건립되지 않았고, 비슷한 시기 영해 향전에도 영향을 미쳐 훼손의 근거로 준용되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조선후기 영남 노론계 원우 건립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 IV. 맺음말

본론에서 검토한 운곡영당 치폐의 특징과 영남 내 비 남인계 서원 연구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으로 결론을 삼고자 한다.

『운곡영당장고』와 관찰사료를 통해서 본 18세기 말 19세 초 치폐를 거듭한 영양현 운곡영당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원 신설 금령을

93) 영양향교 기로회 관련 자료는 1763년 「育英樓耆老會題名」, 1784년 「鄉校耆老會題名」, 1796년 「聖廟重修落成養老會題名」, 1856년 「耆老會錄」, 1874년 鄉校耆老會話錄, 1889년 居接時堂上會話錄 6책이 전한다. 여기서는 성관이 등재된 1874년과 1889년을 전거로 삼았는데 입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姓貫	溟陽趙	野城鄭	咸陽吳	英陽南	安東權	奉化琴	眞寶李	全義李	全州柳	東萊鄭
1874년	12	4	4	2	1	1	1	1	·	·
1889년	18	·	5	1	3	1	·	·	1	1

94) 재령이씨 10명, 한양조씨 8명, 함양오씨 1명 조준호, 앞의 논문(1997), 172쪽 참고.

피하는 영당의 형식을 취하면서 반대 세력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주는 주자와 송시열을 배향인물로 선정하고 있다. 두 번째 향증 공론이 아닌 성균관과 예조, 재경 고위관료 등 외부의 힘을 이용해 건립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였다. 셋째 영남 감사의 당색과 의지가 휘철과 중건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넷째 본 사건 결과 향촌 내 기존 사족 지배체제가 더욱 공고해졌다. 다섯 번째 조선후기 영남 특히 좌도에서 노론계 서원 건립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 영남지역 서원 연구는 거의 남인계 서원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비 남인계 서원 즉 서인계 서원이 소수이기도 하거니와 자료의 부족 그리고 영남은 남인이라는 관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 영남 지역에서 우세한 색목이 모두 남인이었던 것은 아니다. 1738년(영조 14) 율곡의 아우 李瑀의 후손인 正言 李壽海가 안동 김상헌 서원 재 건립 상소에서 언급한 영남의 대표적인 서인계 가문<sup>95)</sup>들을 위시한 제 가문에서도 院宇를 창건하고 운영하였다. 영남 서인계 서원에 대한 建院 주체, 조직과 운영, 서원 향전 등에 대한 일부 연구 성과가 있으나 경제적 기반, 강학과 정치·사회 활동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명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또한 서인계 핵심 인물들을 배향한 서원은 물론이고, 나아가 서인계 학자를 사사한 영남 문인 서원, 서인계 지방관 서원, 서인계로 전환한 기존 서원, 서인계 문중 서원 등 다양한 비 남인계 서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이 논문은 2018년 1월 24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8년 2월 5일부터 3월 14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8년 3월 15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95) 『승정원일기』, 영조 14년 7월 22일. 贈領議政洪翼漢, 及故相臣洪暹後孫, 俱在順興, 先正臣文獻公鄭汝昌後孫在咸陽, 文莊公臣曹偉後孫在金山, 文靖公臣尹斗壽後孫在大丘, 故靑陽君臣沈義謙後孫在密陽, 故大司諫臣金就文, 平靖公臣李約東, 文戴公臣金應箕, 故承旨臣朴守弘後孫, 俱在善山, 故節士臣趙旅, 故判書臣成泳後孫, 俱在尙州, 故忠臣河緯地後孫在榮川, 故進善臣申碩蕃後孫在咸昌, 故大司成臣申敏一後孫在醴泉. 此皆表表可稱, 而卽今立朝官高者, 慶尙監司臣尹陽來, 亦世居嶺南之人也.

## 참고문헌

『雲谷影堂掌故』,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승정원일기』, 『일성록』, 『조선왕조실록』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국역 서원등록』, 2015.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慶北鄕校資料集成』 I, 영남대학교출판부, 1992.

영덕문화원, 『국역 盈寧勝覽』, 경문사, 2011.

청량산박물관, 『국역 戊午日記』, 민속원, 2015.

한국국학진흥원, 『국역 청대일기』, 청솔, 2015.

이수환, 『조선후기 서원연구』, 2001.

정만조, 『朝鮮時代 書院研究』, 집문당, 1997.

고석규, 「19세기 전반 鄕村社會勢力間 對立의 推移」 『국사관논총』 8, 1997.

고수연, 「18世紀 初 湖西地域 書院의 黨派의 性格 -朱子·宋時烈 祭享 書院을 中心으로」 『湖西史學』 29, 2000.

권태을, 「禁銀店疏行日記 研究」 『尙州文化研究』 12, 2002.

김준형, 「조선후기 영남지역 鄕戰의 분석」 『남명학연구』 43, 2014.

배재홍, 「조선후기 향촌사회에서 庶孽의 존재양태와 鄕戰」 『경북사학』 15, 1992.

유기선, 『17~18세기 상주향교의 靑衿儒生』,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정현정, 「조선중기 朱子祭享 書院의 사회사적 성격」 『한국서원학보』 1, 2011.

조준호, 「17~18세기 英陽地方 漢陽趙氏의 門中研究」 『북악사론』 4, 1997.

채광수, 「경주 여주이씨 玉山派의 章山書院 건립과 운영 -조선후기 영남지역 노론계 서원 건립 사례 연구」 『한국서원학보』 4호, 2017.

채광수, 「老江書院의 연혁과 인적구성」 『민족문화논총』 60, 2015.

## The Chipye of Ungokyeongdang in Yeongyang-hyeon from the Late 18th to the Early 19th Century

- Focusing on the case of building Noron-line wonwoo in the region of bokhyeon in Yeongnam during late Chosun

Chae, Gwang-su

Grounded on 『Ungokyeongdang-janggo』, the records of hyangjeon developed fiercely between sin-gu hyang in Yeongyang-hyeon that went through bokhyeon during the late 17th century about founding Ungokyeongdang to enshrine Chu-tzu and Song Siyeol from the late 18th until the early 19th century, we can reorganize the case of chipye(installation and abolition) of Ungokyeongdang that is rather briefly mentioned in government-compiled historical records.

Seowon in the early 18th century had roles in accelerating the split of cliques by letting the central ruling clique to bring down the japa clique and also jaejisajok take the lead in the hyangchon. In Yeongnam, too, after the Gapsulhwanguk, reacting to the support of the central Noron clique and local government authority, rising Noron cooperated to found 20 Noron-line wonwoo, and among them, the ones to enshrine Song Siyeol are found the most.

In Yeongyang-hyeon, too, taking advantage of that situation, the sinhyang clique built yeongdang in yun May of 1781 (Jeongjo 5) after all the hardships getting advice from gyeonghyang; however,

Soron-line Jo Si-jun appointed as Gyeongsang Gamsa in September damaged and demolished(hwecheol) it on a charge of building seowon newly. Five years after that, Seogan-sa, the future being of Andong Kim Sang-heon Seowon that had caused troubles both in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 Yeongjo's reign, seemed to be reconstructed with the saaek in 1786 (Jeongjo 10) as an opportunity; however, it went for nothing due to namin's interference. After that, Ungokyeongdang notified it to Seonggyungwan and others to yubeol the initiators of hwecheol, and in February of 1802 (Sunjo 2), they got suppor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long with the appointment of Noron-line Gamsa, Nam Gong-cheol, and finally succeeded in reconstructing it. But in February of 1806 (Sunjo 6), Soron-line Gamsa, Yun Gwang-an, committed hwecheol again, and then, fact finding was done through sangseo to the king. The result showed that in the process of hwecheol, there had been serious problems in terms of ibong or uijeol, and those involved in it got punished. However, the yeongdang was no longer reconstructed.

Regarding the chipye of Ungokyeongdang, the guhyang of namin desperately needed to hwecheol the yeongdang even up to three times though it had been approv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t was because they had to hold the dominant position in the hyangchon. At the same time, the growing sinhyang of Noron tried the reconstruction of that yeongdang also three times challenging the hyanggwan. It was the case that took place within that conflict, and it plainly tells us how hard it was to build Yeongnam Noron-line wonwoo in late Chosun.

**Keywords**

Ungokyeongdang, Yeongyang-hyeon, hyangjeon, Noron, hwecheol